2021년 3월 28일
금문교회 종려주일예배 GGPC Palm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호산나! Hosanna!
마가복음 Mark 11:1-26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Now when they drew near to Jerusalem, to Bethphage and Bethany, at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of his disciples,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And said to them, "God into the village in front of you, and immediately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colt tied, on which no one has ever sat. Untie it and bring it.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And if anyone says to you, 'Why are you doing this?' Say, 'The Lord has need of it,' And will sent it back here immediately."
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And they went away and found a colt tied at a door outside in the street, and they untied it.
5.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And some of those standing there said to them, "What are you doing, untying the colt?"
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And they told them what Jesus had said. And they let them go.
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And they brought the colt to Jesus and threw their cloaks on it. And he sat on it.
8.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And many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And others spread leafy branches that they hat cut from the fields.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And those who went before and those who followed were shouting,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And he entered Jerusalem and went into the temple. And when he had looked around at everything. As it was already late, he went out to Bethany with the twelve.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On the following day, when they came from Bethany, he was hungry.
13.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And seeing in the distance a fig tree in leaf, he went to see if he could find anything on it. When he came to it, he found nothing but leaves. For it was not

the season for figs.
14.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And he said to it, “May no one ever eat fruit from you again.” And his disciples heard it.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And they came to Jerusalem. And he entered the temple and began to drive out those who sold and those who bought in the temple. And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changers and the seats of those who sold pigeons.
16.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And he would not allow anyone to carry anything through the temple
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And he was teaching them and saying to them, “Is it not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the nations?’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heard it and were seeking a way to destroy him. For they feared him. Because all the crowd was astonished at his teaching.
19.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And when evening came, they went out of the city.
20.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As they passed by in the morning, they saw the fig tree withered away to its roots.
21.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And Peter remembered and said to him, “Rabbi, look! The fig tree that you cursed has withered!”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And Jesus answered them, “Have faith in God.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Truly, I say to you, whoever says to this mountain, ‘Be taken up and thrown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what he says will come to pass, it will be done for him.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And whenever you stand praying, forgive,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one, so that your Father also who is in heaven may forgive you your trespasses.
26.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But if you do not forgive, neither will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forgive your trespasses.

종려주일입니다. 마가복음 이 본문은 이미 얼마 전에 순서를 따라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1년 종려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증거 하겠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부패한 가톨릭을 벗어나 말씀에 바로 선 교회를 세운 "종교개혁"과 그 정신이 오늘 새롭게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 안에 부정과 부패한 세력이 깃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참 뜻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건물은 서 있으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정하면 사회를 정화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없습니다. 등에 기름이 없어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고 말 일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맙니다.

미얀마 사태가 심각합니다. 벌써 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미국 땅에 인종혐오 범죄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중국 커뮤니티가 연합하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모든 인종이 샬롬의 평안을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 당신께서 "메시야"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교회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가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이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 요한계시록 Revelation 3:20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이미 요시야 왕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들어와 제사하려는 자들에게 도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위 "성전설교"입니다.

>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 Do not trust in these deceptive words: 'This is the temple of the Lord, the temple of the Lord, the temple of the Lord.'
> 예레미야 Jeremiah 7:4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거기가 무슨 여호와의 성전입니까? 인간이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건물일 뿐입니다.

>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 For if you truly amend your ways and your deeds, if you truly execute justice one with another, if you do not oppress the sojourner, the fatherless, or the widow, or shed innocent blood in this place, and if you do not go after other gods to your own harm, then I will let you dwell in this place, in the land that I gave of old to your fathers forever.
> 예레미야 Jeremiah 7:5-7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땅, 곧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그러나 예레미야의 경고도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에 따라서 70년이 찬 후에 이스라엘을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 Jesus left the temple and was going away, when his disciples came to point out to him the buildings of the temple. But he answered them, "You see all these, do you not? Truly, I say to you, there will not be left here one stone upon another that will not be thrown down."
> 마태복음 Matthew 24:1-2

오늘날 교회들이 "건축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과 대화하신 장면입니다:

>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 The woman said to him, "Sir. I perceive that you are a prophet. Our fathers worshiped on this mountain, but you say that in Jerusalem is the place where people ought to worship."
> 요한복음 John 4:19-20

사마리아 여인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장소분쟁"이 있던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입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 Jesus said to her, "Woman! Believe me! The hour is coming when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will you worship the Father. You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But the hour is coming, and is now her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 Father is seeking such people to worship him.
요한복음 John 4:21-23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의 자리.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거기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1517년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가톨릭교회와 교황의 부정한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면죄부"(indulgence)였습니다. 면죄부 판매 행위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해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부정과 부패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교회당 문 앞에 95개 조항 반박문(95 Thesen)을 내다 걸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개신교회"가 첫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권주의"에 침략 당하고 말면, 가톨릭교회처럼 세속적인 권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상업세력이 되고, 교회의 모든 행위는 세속적인 정치-경제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진실한 속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진실한 속성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진정은 "진리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배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Now when they drew near to Jerusalem, to Bethphage and Bethany, at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of his disciples,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감람산 지역에 오셨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증인들"입니다.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And said to them, "God into the village in front of you, and immediately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colt tied, on which no one has ever sat. Untie it and bring it.

예수님께서 말씀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풀어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And if anyone says to you, 'Why are you doing this?' Say, 'The Lord has need of it,' And will sent it back here immediately."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로써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신 것입니다.

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And they went away and found a colt tied at a door outside in the street, and they untied it.

두 제자들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과연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풀었습니다.

5.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And some of those standing there said to them, "What are you doing, untying the colt?"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그대로 어떤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And they told them what Jesus had said. And they let them go.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이 허락했습니다.

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And they brought the colt to Jesus and threw their cloaks on it. And he sat on it.

그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이 나귀는 누구도 타 보지 않은 새끼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8.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And many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And others spread leafy branches that they hat cut from the fields.

제자들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달리 보면 이것은 아무도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무교병”을 싸서 나오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들이 증거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길에 오직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And those who went before and those who followed were shouting,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예수님의 앞과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움직이는 중에 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 호산나!
>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 Hosanna!
>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그 찬송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 찬송하리로다!
>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 Hosanna in the highest!

이 외침은 시편 118:25의 예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 Save us, we pray, O Lord!
> O Lord, we pray, give us success!
> 시편 Psalm 118:25

이 찬송은 예수님 탄생 때 천사들의 찬송처럼 들렸습니다.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 누가복음 Luke 2:14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들의 소리를 불쾌하여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And he entered Jerusalem and went into the temple. And when he had looked around at everything. As it was already late, he went out to Bethany with the twelve.

마가복음은 이 첫째 날 성전에서 둘러보시기만 하신 주님으로 묘사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나가셨습니다. 나병환자 등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나귀 타시고 입성하신 예루살렘 행진의 출발지였습니다. 훗날 부활 후 40일 만에 여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On the following day, when they came from Bethany, he was hungry.

이튿날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두 번째로 나아가실 때였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13.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And seeing in the distance a fig tree in leaf, he went to see if he could find anything on it. When he came to it, he found nothing but leaves. For it was not the season for figs.

어떤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가셔셔 보셨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때!” 아니었습니까? 나무도 그렇거니와 사람은 자기의 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는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써, “당신의 때”가 도래 한 것입니다.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시간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14.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And he said to it, “May no one ever eat fruit from you again.” And his disciples heard it.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증인들입니다.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And they came to Jerusalem. And he entered the temple and began to drive out those who sold and those who bought in the temple. And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changers and the seats of those who sold pigeons.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뒤엎으셨고,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들은 예배인간이 아니라 "강도들"이었습니다.

16.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And he would not allow anyone to carry anything through the temple

그리고 성전 안에 이전 방식으로 지나다닐 수 없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질서,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And he was teaching them and saying to them, "Is it not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the nations?'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설교에서 갈파한 그대로,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버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성전은 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56:7 예언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 For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peoples.
> 이사야 Isaiah 56:7b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heard it and were seeking a way to destroy him. For they feared him. Because all the crowd was astonished at his teaching.

제일 크게 반응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예수님 때문에 끊기게 생겼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이 끊긴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도행전 16:16-34.

바울이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갔을 때, 데메드리오(Demetrius)라는 은장색(silversmith)이 아데미(Artemis) 은신전(silver shrines)을 만들어 파는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만든 신은 거짓이라고 가르치는 바울 일행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영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 These he gathered together, with the workmen in similar trades, and said, "Men, you know that from this business we have our wealth. And you see and hear that not only in Ephesus but in almost all of Asia this Paul has persuaded and turned away a great many people, saying that gods made with hands are not gods. And there is danger not only that this trade of ours may come into disrepute but also that the temple of the great goddess Artemis may be counted as nothing, and that she may even be deposed from her magnificence, she whom all Asia and the world worship."
> 사도행전 Acts 19:25-27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베소 연극장으로 그들을 끌고 갔는데,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Gaius)와 아리스다고(Aristarchus)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9:21-41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돈줄이 끊기자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직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한 것입니까?

19.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And when evening came, they went out of the city.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20.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As they passed by in the morning, they saw the fig tree withered away to its roots.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그 무화과나무였습니다.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21.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And Peter remembered and said to him, "Rabbi, look! The fig tree that you cursed has withered!"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그 말라버린 나무를 지적했습니다.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And Jesus answered them, "Have faith in God!

예수님께서 베드로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 하나님을 믿으라!
> Have faith in God!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Truly, I say to you, whoever says to this mountain, 'Be taken up and thrown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what he says will come to pass, it will be done for him.

기도하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산이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대로 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한 것은 그대로 됩니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주님께서 기도하고 받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그대로 됩니다.

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And whenever you stand praying, forgive,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one, so that your Father also who is in heaven may forgive you your trespasses.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용서할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요? 용서할 자가 아직 있는데 기도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순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즉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기도의 능력은 용서할 것을 용서한 이후의 기도입니다.

>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 Leave your gift there before the altar and go. First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and then come and offer your gift.
> 마태복음 Matthew 5:24

26.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But if you do not forgive, neither will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forgive your trespasses.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 마태복음 Matthew 6:12

들으시는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팬데믹(pandemic)이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사회에 닥쳤습니다. 교회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변화해 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사명은 전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 호산나!
> Hosanna!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회적인 문제보다 더욱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기근"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죄악의 종이며, 그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애굽의 학대 아래 부르짖던 이스라엘을 생각하십니까?

>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 During those many days the king of Egpt died. And the people of Israel groaned because of their slavery and cried out for help. Their cry for rescue from slavery came up to God.

> 출애굽기 Exodus 2:23

이들처럼 온 세상에 부르짖는 것은 "구원주"을 부름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그 뜻은 이렇습니다:

>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지금이 그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할 때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는 온 세계의 교회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 따라가는 모든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founder and perfector of our faith!
> 히브리서 Hebrews 12:2a

하나님의 교회인 금문교회는, 후파제일침례교회는, 우리와 선교협력을 하는 모든 이 땅의 거룩한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저 천국에 이르도록!

이 길에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또한 주목합니다. 우리 각자의 생명은 천하강산보다 귀하게 창조하셨고, 귀한 보혈로써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사신 것입니다.

> 예수님어치!
> 예수님만큼!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저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Or do you now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ith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You are not your own. For you were bought with a price. So glorify God in your body!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6:19-20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귀 타시고 오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흠과 티가 없게 준비해야 합니다.

>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 Now may the God of peace himself sanctify you completely, and may your whole spirit and soul and body be kept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He who calls you is faithful. He will surely do it.
> 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 5:23-24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내버리도록 도전하십니다.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 갈라디아서 Galatians 5:22-23

>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 And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 갈라디아서 Galatians 5:24

호산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사랑 깊은 동행의 아름다운 나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한 연고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써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 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